

“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관리법 아시나요?”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 선포

- 20일 오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 선포식’ 첫 개최
- “50대 이상 남성, 매년 한 번 전립선암 검사하세요!” 시민 수백 명에게 전립선암 예방·관리 당부



▲ (사진설명) “50대 이상 남성, 올해 전립선암 검사 받으셨나요?”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전립선암 주간을 맞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전립선암 예방수칙을 전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50대 이상 남성은 전립선암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왼쪽부터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정병창 총무이사, 조진선 회장, 시민, 홍성후 홍보이사)

[서울, 2016년 09월 21일]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와 대한비뇨기종양학회(회장 조진선,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기과)가 국내 전립선암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시민 수백 명과 함께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을 선포했다.

학회는 전립선암 고위험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예방·관리법을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전립선암 바로알기 무료 강연, △전립선암 주간 선포식 순서로 열린 이 행사에서 블루리본 배지를 단 학회 임원진이 직접 시민들에게 블루리본 배지, ‘전립선암 바로알기’ 안내 책자와 함께 전립선암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나누었다. 블루리본은 ‘전립선암 극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인식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블루리본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하는 2017년 전립선암 폭발적 증가 위험

이 날 ‘전립선암 바로알기’에 대해 강연한 홍성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홍보이사(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주된 위험요인이 나이와 서구화된 식생활인 전립선암은 내년부터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ⁱ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50대 이상 남성,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40대 이상 남성 등 전립선암 고위험군은 전립선암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전립선암은 최근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성암으로ⁱⁱ 2013년 한 해에만 9,515명의 남성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2000년 1,304명에서 13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ⁱⁱⁱ 50세부터 발병이 급격히 늘어 특히 60대 발생률이 높다.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전립선암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9월은 전립선의 달, 셋째 주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주간

전립선암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남성암 1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OECD 국가의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떠오르는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9월을 ‘전립선의 달’로, 9월 셋째 주는 ‘전립선암 인식 주간’으로 지정해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iv}

국내에서는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매년 9월 ‘블루리본 캠페인’을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을 선포했다. 전립선암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과 더불어, 발생사실을 초기에 바로 알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관심을 기울이자는 중의적인 의미다.

조진선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은 “전립선암은 매년 1회 간단한 검사를 통해 조기검진이 가능한데,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된 초기 전립선암을 치료할 경우 생존율이 100%에 달한다. 반면, 전립선을 넘어간 진행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38.6%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며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을 통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립선암에 대해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50대 이상 남성, 매년 한 번 전립선암 검사하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강좌 등 전립선암 바로 알리기에 힘쓸 예정이다.

블루리본 캠페인 전립선암 바로알기 무료강연 일정(문의 02-318-2262)-

지역	장소	일정
전북	남원시 보건소	10월 20일
인천	부평구 보건소 건강아파트 (산곡동 한신휴아파트)	10월 20일
인천	부평구 보건소	11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11월 30일

#

* 연평균 증가율 높은 3대암: 1위-갑상선암 21.2%, 2위-전립선암 11.8%, 3위-신장암 약 5.7%(1999년-2013년 주요 암종별 연간 % 증가율 남녀전체 기준).

[참고]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1.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채소 섭취
2.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
3.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체중을 유지
4.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전립선암 조기검진
5.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전립선암 조기검진



ⁱ 통계청. 2015 한국의사회지표. 2016.03.22 (「장래인구추계」 2011.12.)

ⁱⁱ 2013년 국내 225,343건의 암 발생 중 전립선암은 9,515건, 전체 암 발생의 4.2%로 7위를 차지했고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13년 암등록통계). 2015.12

ⁱⁱⁱ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13년 암등록통계). 2015.12

^{iv} 국제암연구소에서 2007년까지의 암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2012년 암발생률에 따르면 전립선암이 미국 98.2%, 영국 73.2%의 발생률로 남성암 1위를 차지했다.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13년 암등록통계). 2015.12

^v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13년 암등록통계). 2015.12